

소 형근(서울신대 강사) 노라(Nora) 비문과 구약의 '나기드'(נָגִיד) 연구

1773년 사르디니아 남부에 위치한 노라(Nora) 지역에서 고대 페니키아어로 기록된 비문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은 전체 8열로 구성되며, 특히 7열에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와 유사한 '나기드'(nga)라는 단어가 나온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노라 비문에 대한 논쟁들을 소개하고, 구약의 '나기드' 용례도 소개한다.

노라(Nora) 비문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나기드'(נָגִיד)의 연구

소 형근 | 서울신대 강사

1. 서론

1773년 노라(Nora) 지역에서 고대 페니키아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자료들 중 하나인 비문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이 발견된 노라는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사르디니아(Sardinia)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비문은 현재 사르디니아의 수도인 카그리아리(Cagliari)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비문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니키아인들은 과거 지중해 지역에 거대한 상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기원전 8세기경부터 사르디니아에 몇몇 도시들과 요새들을 건축했었다(Tharros, Bithia, Sulcis, Nora, Cagliari). 특히 사르디니아는 지중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카르타고, 스페인, 론(Rhone)강과 에트루리아(Etruscan) 문명 사이에 위치한 서부 지중해의 중심 지역이었다. 1941년 올브라이트(W. F. Albright)는 노라 비문(Nora Stele)

연구를 통해 이 비문은 페니키아 식민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¹⁾ 이러한 노라 비문은 기원전 9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노라 비문이 구약성서 연구에 주목받는 이유는 먼저, 고대 히브리어가 고대 페니키아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구약성서의 관리의 호칭인 '나기드'(ngd)가 노라 비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라 비문의 기록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특히, 비문의 1-4열과 7-8열에 대한 논쟁)들을 소개하고, 비평하면서, 비문의 7열에 기록된 페니키아어 나기드(ngd)의 기능을 살피도록 하겠다. 또한 구약성서에 나타난 נָגִיד(나기드/주권자)의 기능을 살피고, 나기드의 시대별 의미 변화를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나기드는 시대별로 기능이 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페니키아어 나기드와 히브리어 나기드의 연결점이 가능한지를 살피보도록 하겠다.

2. 노라 비문

이 비문은 위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는 점과, 현재 전시되고 있는 이 비문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서체에 빨간색 분필로 덧씌웠다는 특징이 있다. 비문의 전체는 8열로 구성되었는데, 1열의 오른쪽 위의 내용이 잘려나간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조각된 자음들은 대체로 선명하여 판독이 가능하며, 몇 개의 알파벳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다. 노라 비문을 음역하면 다음과 같다.

1열	בְּתַר שׁ	다시스에서
2열	וְגַרְשׁ הָא	그는 추방당했다.
3열	בְּשַׁרְדִּינָא שׁ	사르디니아에서
4열	וְהָא ל	그[= 그 군대]가 평안을 찾았다.

1) W. F. Albright, "New Light on the Early History of Phoenician Colonization," *BASOR* 83 (1941), 14-22쪽. 울브라이트는 이후(1961) 자신의 연구서에서 노라 지역은 페니키아의 식민지일 뿐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페니키아의] 성읍이었다고 본다. 참조 W. F. Albright, "The Role of the Canaanites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G. E. Wright(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Doubleday, 1961), 346쪽.

5열	מ צבא מ	그 군대가
6열	לכת ב	밀카톤에게 속한, 아들
7열	שב נגר	군대 지휘관 슈본의 [아들]
8열	לפמי	푸그마리온 [왕을] 위해

1) 1-4열에 대한 해석 논쟁

노라 비문에 대한 연구자들이 그 동안 많지 않았다. 소수의 연구자들이지만 노라 비문에 대한 연구자들인 울브라이트, 펙햄(B. Peckham), 크로스(F. M. Cross), 시어(W. H. Shea) 등은 이 비문이 하나의 잘 짜여진 문장으로 존재했던 것에 동의하며, 펙햄과 크로스는 슈본(7열: šbn)의 아들(6열: bn), 밀카톤(5-6열: m lktn)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사르디니아(3-4열: Sardinia)에서 평안(거점)을 찾았다는 내용으로 이 비문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해석상의 차이점들이 있다. 먼저 펙햄은 1-4열까지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며, 해석한다.²⁾

1열:	<i>btršš</i>	From Tarshish
2열:	<i>wgrš h'</i>	he was driven,
3열:	<i>bšrdn š</i>	in Sardinia he
4열:	<i>lm h' šl</i>	he found refuge

펙햄은 페니키아 군대 지휘관 밀카톤(5-6열: *m lktn*)과 그의 군대가 다시스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다시스에서 추방되어(1-2열), 사르디니아에 [전략적] 거점을 찾게 되었다(3-4열)고 본다.³⁾

1열에 나오는 다시스(*tršš*)라는 지역은 분명 3열에 나오는 사르디니아와는 다른 지역으로, 펙햄은 다시스를 지중해 서편에 있는 스페인이나, 혹은 지중해 동편에 있는 길리기아(Cilicia)의 다소(Tarsus)로 추정한다.⁴⁾ 그러나 불행히도 다시스와 사르디니아 지역의 역사적 접촉에 대한

2) B. Peckham, "The Nora Inscription," *Orientalia* 41 (1972), 459쪽.
 3) 윗글, 459-460쪽.
 4) 윗글, 460쪽. 아마도 다시스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가 아니라, 지중해 서편 지역에 있는 스페인

자료가 이 비문을 제외하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다시스의 정확한 지역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문의 1-4절을 통해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한 장소(다시스)에서 다른 장소(사르디니아)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2절에 나오는 가라쉬(*grš*)는 페니키아어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지만, 우가릿이나, 모압(KAI 181: 19)에서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추방하다, 쫓아내다’(to drive out, away)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펙햄은 2절의 *grš* (= *he was driven*)을 수동형 동사로 밀카톤이 다시스에서 ‘추방되었다’고 번역한다. 그러나 노라 비문의 1-4절에 대한 크로스의 해석은 다르다.⁵⁾

[a.	He fought (?)]
[b.	with the Sardinians (?)]
1절: <i>ba-taršiš</i>	at Taršiš
2절: <i>wa-garrišō hū'</i>	and he drove them out
3절: <i>ba-šardina ša-</i>	Among the Sardinians
4절: <i>-lim hū' šal-</i>	he is [now] at peace

크로스는 노라 비문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전체 8절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라 비문의 1절 오른쪽 위쪽이 파손되어 1절의 알파벳이 불완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로스는 1절 오른쪽 위쪽에 한 열, 혹은 두 열 정도가 추가되어야 하며, 추가될 내용은 2절에 나오는 *w-grš*(and he drove [them]out)로부터 추정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크로스는 초기 페니키아어와 가나안어에서 Gt⁶⁾ 형태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hlthm*(**חלחמ**⁷⁾, to fight

이 유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시스는 사르디니아와 가까운 위치이고, 만약 다시스에서 추방당했다면 페니키아인들이 퇴각하는 도중 가까운 사르디니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5) F. M. Cross, "An Interpretation of the Nora Stone," *BASOR* 208 (1972), 15-16쪽.
 6) 고대 셈어에서는 기본형(Grund Stem) 동사 중간에 -t-를 붙여서 Gt형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페니키아어와 우가릿어, 아카드어 등에서 볼 수 있다.
 7)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חלח**)의 히트파엘(*Hithpael*) 형태와 같다.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인 히트파엘형은 후기 푸닉에서도 나타나며, 페니키아어에서는 보통 이트파엘(*Itipael*)형으로 사용된다.

against (or with))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3열에 나오는 사르덴(šrdn)을 통해 사르디니아에 이미 이전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존재했음을 착안하여 그들의 지역명과 함께 b열의 내용을 첨부시켰다.⁸⁾ 종합해 보면 크로스는 “그(= 밀카[쿠]톤)가 사르디니아 사람들과(b열) 다시스에서(1열) 전쟁을 했으며(a열) 그는 그들을 추방했다(2열). 사르디니아 사람들 중에서(3열) 그는 [이제] 평화를 찾았으며(4열),”라고 가상의 a-b열과 노라 비문의 1-4열을 해석한다.

펙햄과 크로스가 주장하는 바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라 비문의 1-4열에 대해 펙햄은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지역 이동(다시스에서 추방당해)을 통하여 다시스에서 사르디니아에 정착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크로스는 밀카톤이 사르디니아 사람들과 다시스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곳이 평화롭게 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비문의 1-8열에서 사용된 페니키아어 단어들(*grš*[쫓아내다], *ngd*[군대 지휘관], *šb*[군대])이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밀카톤과 그의 군 병력이 단순히 지역 이동을 행했던 보고라기 보다는 승전(勝戰)에 대한 기념비적 보고라고 대략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비문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에 대해서는 5-8열 본문 관찰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을 살피면, 이 비문이 군대의 단순한 이동이 아닌, 전쟁 보고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밀카톤의 군대가 다시스를 점령한 것일까? 아니면 사르디니아를 점령한 것일까? 펙햄은 페니키아 군대가 사르디니아에 정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로스는 페니키아 군대가 다시스에 있는 사르디니아인들을 추방했다고 주장한다. 이 비문을 통해 볼 때, 페니키아인들이 다

페니키아어 이트파엘형은 히브리어와 같이 보통 재귀의 의미로 사용된다(J. Friedrich and W. Röllig, *Phönizisch-Punische Grammatik*, 3. revised and enlarged ed. by M. G. A. Guzzo,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9], 94쪽). 그러나 히브리어 이트파엘형은 때로는 수동의 의미로도 번역 가능하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31-432쪽). 아마도 페니키아어의 이트파엘형도 재귀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 두 가지 번역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8) F. M. Cross, 윗글, 16쪽.

시스를 점령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크로스는 자신의 주장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a-b열과 비문의 1열을 인위적으로 연결시켰으며, 2열에 있는 자음 가라쉬(*grš*)라는 단어를 능동으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크로스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노라 비문의 1-4열에 번역 상 중요한 단어는 2열에 있는 가라쉬(*grš*)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페니키아 군대 지휘관인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다시스에서 추방당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다시스에서 그들(아마도 사르디니아인들)을 추방한 것이 될 수도 있게 된다.

크로스는 2열의 동사 가라쉬(*grš*)를 수동의 형태가 아닌, 능동형의 동사로 번역한다. 그러다 보니 2열의 밀카톤이 사르디니아 사람들을 다시스에서 추방한 것으로 번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펙햄은 2열의 가라쉬(*grš*)를 수동형의 동사로 번역하여 밀카톤이 다시스에서 쫓겨 나온 것으로 번역한다. 그렇다면 가라쉬(*grš*)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고대 페니키아어는 일반적으로 고대 히브리어와 유사하게 동사의 수동 형태(*niphal*)를 사용하기 위해 접두어 *n*(nun)을 사용한다.⁹⁾ 그러나 노라 비문의 가라쉬(*grš*)에는 접두어 *n*(nun)이 빠져 있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번역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라면 크로스의 해석이 옳다. 그러나 만약 가라쉬(*grš*)가 기본형 동사(G-stem)의 수동 분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혹은 가라쉬(*grš*)가 상태 동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형태는 능동처럼 보이지만, 수동형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펙햄의 번역인 수동형 번역이 옳다. 따라서 가라쉬(*grš*)는 자음만을 놓고는 능동과 수동 번역의 가능성이 둘 다 열려 있다.¹⁰⁾ 그러나 필자는 가라쉬(*grš*)라는 단어가 타동사임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목적어가 비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능동형보다는 수동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에는 수동과 능동의 형태들이 발달되어

9) J. Friedrich and W. Röllig, *Phönizisch-Punische Grammatik*, 3. revised and enlarged ed. by M. G. A. Guzzo,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9), 87-88쪽.

10) 페니키아어에는 기본형(Qal)에서 능동 분사와 수동 분사,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능동(נִכְחַ)과 수동(נִכְחַ)의 형태가 외형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릿글, 84-86쪽). 이것은 문맥에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펙햄의 번역과 크로스의 번역, 둘 다 가능하다.

있었기 때문에, 만약 비문의 기록자가 가라쉬(*grš*)를 능동의 동사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크로스의 해석처럼 가라쉬(*grš*) 뒤에 목적격 조사 ‘오’(*o*)를 사용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문에 타동사 뒤에 목적격 조사가 없다는 것은 이 단어가 수동형 분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문의 1열과 2열을 한번에 함께 읽고, 3열과 4열을 함께 읽는 것이 옳다. 즉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다시스를 점령하고 아마도 얼마 지나서 그곳에서 추방되어(1-2열), 새로운 개척지 사르디니아를 점령하게 되었다(3-4열).¹¹⁾ 비문 1-4열은 펙햄의 페니키아 군대의 단순한 이동도, 크로스의 다시스 점령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2) 5-8열에 대한 해석 논쟁

펙햄은 노라 비문의 5-8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해석한다.¹²⁾

5열: <i>m šb' m</i>	his forces found refuge
6열: <i>lktn bn</i>	Milkûtôn, son of
7열: <i>šbn ngd</i>	Šubôn, the commander
8열: <i>lpmv</i>	To [the god] Pmy

5열 후반부와 **6열**에 나오는 밀카톤(*m lktn*)은 페니키아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푸닉(Punic)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서 적어도 두 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밀카톤(*mlkt*)은 페니키아어와 푸닉에서 신적인 이름의 요소로 남성 이름에 사용되던 단어이다. 노라 비문을 제외하고,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밀카톤(*mlkt*)의 가장 오래된 사용은 앗시리아의 에살하돈 통치 시기인 기원전 7세기에 시돈 왕 아브디밀쿠테(*Abdimilkutte*)라는 이름이다(ANET 290-292). 그 밖에도 *dnmlkt*, *'rmlkt*, *ḥmlkt* 등이 있다.

11) M. E. Aubet, *The Phoenicians and the West: Politics, Colonies and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2001), 212-237쪽. 페니키아인들이 기원전 8-7세기 경에 이미 사르디니아 해안 일부 항구도시들에 정착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밀카톤과 그의 군대가 다시스에서 쫓겨나, 페니키아 귀환 중 새로운 정복지인 사르디니아를 점령했던 것으로 보인다.

12) B. Peckham, *윌클*, 459쪽.

7열에 나오는 슈본(*šbn*)은 우가리트어와 히브리어(왕하 18:37; 느 9: 4-5; 대상 15: 24 등)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페니키아어에서는 노라 비문을 제외하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슈본(*šbn*)은 애칭적인 이름으로, 슈브(*šûb*)에서 기원된 듯 하며, 접미에 온(*-ōn*)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열의 나기드(*ngd*) 역시 페니키아어에서는 생소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아람어 비문인 스피레 비문(Sefire inscription)에서 왕실의 왕자보다는 조금 낮은 '(높은 서열의)장교 혹은 관리'를 의미한다.¹³⁾ 노라 비문에 의하면 밀카톤은 자신의 관할 아래 상당한 병력들(*šb*)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열에 나오는 레푸미(*lpmy*)는 전치사(*l*)와 함께 오는 신(神)의 이름(*Pmy*)으로 노라 비문을 제외하고는 키프로스(Cyprus)와 카르타고(Carthage)에서만 알려진 이름이다. 궤함은 이 비문이 푸미(*Pmy*) 신에게 헌정 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본다.¹⁴⁾

종합해 볼 때, 노라 비문의 5-8열은 '군대 지휘관, 슈본의 아들, 밀카톤이 푸미(*Pmy*) 신에게 [헌정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로스는 궤함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 번째는 페니키아의 군대 지휘관(*ngd*)이 다시스에서 쫓겨나 항해하면서 사르디니아에 거처할 피난처(*haven*)를 찾게 된 것을 축하하는 [상당한 규모의]기념비를 과연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두 번째는 노라 비문이 푸미(*Pmy*) 신에게 헌정 되었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로스가 제기한 첫 번째 주장은 페니키아 군대가 다시스에서 추방당했지만, 새로운 개척지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승전 소식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크로스의 두 번째 주장은 고려해 볼만한 주장이다.

비문의 7-8열에 있는 '나기드 레푸미'(*ngd lpmy*)(비교. *hngyd l' hrwn* [대상 12: 28])는 페니키아 시대에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던 표현이다. 하지만 두로의 연대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원전 831-785

13) J. A. Fitzmyer,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 (1967), 112-113 쪽.

14) B. Peckham, *릿글*, 465-466쪽.

년에 두로를 통치했던 푸미톤(*pmy(y)tn* 혹은 *p'mytn*) 왕(아마도 푸그마리온 *Pugmaliön*)의 애칭으로 푸미(*Pmy*)가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크로스는 주장한다. 푸미(*Pmy*)가 왕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두로 외에도 키프로스에서 기원전 4세기에 푸미톤(*pmytn* 혹은 *pmyytn*)이라는 비문 기록이 있으며, 그리스 전통에서는 푸미(*Pmy*)가 푸그마리온(*Pugmaliön*)으로 알려져 왔었다.¹⁵⁾ 따라서 사르디니아에서 밀카톤이 활동했던 연대를 추정하면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크로스는 두로가 기원전 831년경에 사르디니아 원주민을 진압하기 위해 사르디니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추정하여, 노라 비문의 연대를 주전 9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밀카톤의 비문은 사르디니아를 식민지화했던 페니키아의 성공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 두로가 서부 지중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민지화했던 것과 관련하여 볼 때, 기원전 9세기 이후의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본다.¹⁶⁾ 두로의 푸그마리온(*Pugmaliön*) 왕은 47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으며, 페니키아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의 통치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왕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된 비문이라고 본다.¹⁷⁾

그러나 위의 꺾힘과 크로스의 주장과는 달리 시어는 노라 비문의 8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있다. 쉬어는 노라 비문의 8열이 레푸미(*lpmy*)가 아니라, 리푸네(*lpny*)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8열에 나오는 단어는 위쪽으로 그은 획이 단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알파벳은 *m(mem)*이 아니라 *n(nun)*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어에 의하면 학자들 사이에 이런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은 비문의 일부가 깨져서 학자들이 *n*을 *m*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만약 노라 비문의 8열을 레푸미(*lpmy*)가 아닌, 리푸네(*lpny*, לִפְנֵי)로 읽게 될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전치사의 의미로 '[...] 앞에'라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형용사적인 의미로 '이전에'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노라 비문에서 리푸네(*lpny*)의 전치사적 의미는 어색하기 때문

15) F. M. Cross, *윗글*, 17쪽.

16) *윗글*, 18쪽.

17) *윗글*, 18-19쪽.

에, 시어는 형용사적 의미로 읽기를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 군대 지휘관인 슈본의 아들 밀카톤’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비문의 시기가 크로스의 제안처럼 기원전 9세기의 것이며, 두로의 푸그말리온(Pygmalion) 왕 시대라고 말한다.¹⁸⁾

정리하면, 궤함은 레푸미(*lpmy*)를 푸미(*Pmy*) 신에게 헌정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크로스는 레푸미(*lpmy*)를 두로의 푸그마리온(*Pugmaliön*) 왕에게 헌정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어는 레푸미(*lpmy*)를 리푸네(*lpny*, לפני)로 교정해서 ‘이전’이라는 말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어의 제안대로 레푸미(*lpmy*)가 아닌, 리푸네(*lpny*)로 읽는다면, 노라 비문의 연대를 기원전 9세기로 추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노라 비문에 두로 왕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 또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승 기념비는 당대의 왕에게 헌정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승 비문에서 신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전승 비문은 결국 당대 왕의 자화자찬을 목적으로 한다.¹⁹⁾ 이집트의 메르넵타 석비나, 모압 왕 메사 석비 등이 그렇다.²⁰⁾ 따라서 궤함이나 시어의 주장보다는 크로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궤함과 크로스, 그리고 시어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노라 비문의 7열에 언급된 나기드(*ngd*)는 페니키아의 왕이 아닌, 왕의 군대 지휘관(commander/officer)을 말하는 용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후에 설명할 사카라 파피루스와 구약성서의 나기드(*ngd*)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kurs: 사카라 파피루스에 나타난 *ngd*(נגד)]

18) W. H. Shea, “The Dedication on the Nora Stone,” *VT* XLI, 2 (1991), 244쪽.

19) K. L. Nol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Seminar 83), (London: T & T Clark, 2006), 220쪽.

20) 엄 원식,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일고-메사 석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집(1999년 6월), 175-199쪽; 참고 김 영진, “단 석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논단』 13집(2002년 10월), 107-127쪽; 정 중호/최 기수, “앗수르와 이집트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 『구약논단』 4집(1998년 5월), 189-210쪽.

노라 비문에 언급된 나기드(*ngd*)는 고대 근동의 다른 자료들에서는 아쉽게도 자주 볼 수 없다.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는 자료는 사카라 파피루스(Saqqara Papyrus)이다. 이 사카라 파피루스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카라 파피루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의 침략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지역의 왕(아마도 아스글론 왕) 아돈(Adon)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람어로 기록된 외교 문서이다. 이 파피루스는 전체 9열로 되어 있으며, 특히 8열에는 아람어 *ngd*(ܢܓܕ)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아돈 왕이 자신의 신하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내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국에 *phh*(פחה/폐하/총독)를 [세워 줄 것을]제안한다. 그 원인에 해당되는 비문의 일부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아돈 왕이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집트의 속국이 되겠으니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이런 외교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아돈 왕은 왕의 사신인 *ngd*(ܢܓܕ)를 이집트에 보낸 것이다.²¹⁾ 이 사카라 파피루스에서 언급되는 *ngd*(ܢܓ)는 왕의 사신으로 등장한다. 과거 왕의 사신 역할은 왕의 행정 관리나, 혹은 군대 지휘관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람어 *ngd*(ܢܓ)는 왕의 '행정 관리' 혹은 '군대 지휘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약성서에도 노라 비문이나, 사카라 파피루스처럼 히브리어 ܢܓܕ(나기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구약성서 안에서 다양한 발전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구약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ܢܓܕ(나기드)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히브리어 나기드(ܢܓܕ)

히브리어 '나기드'는 구약성서에서 전체 44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횟수가 역사서에 집중되고 있다.²²⁾ 구약성서에서 '나기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려지는 호칭이었다. 먼저 군사적 의미로 '나기드'가 사용되고

21) J. A. Fitzmyer, "The Aramaic Letter of King Adon to the Egyptian Pharaoh," *Biblica* 46 (1965), 41-55쪽.

22) 삼상하 7회, 왕상하 4회, 대상하 21회, 느 1회로 역사서에서 33회 사용되고 있다.

있으며(삼상 9: 16; 삼하 7: 8 등), 관리의 호칭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왕하 20: 5; 렘 20: 1; 사 55: 4; 대상 13: 1; 대하 19: 11 등), 성전과 관련해서도 사용되기도 한다(느 11: 11; 대상 9: 11; 대하 31: 13; 35: 8 등). 이러한 구약성서의 '나기드'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적 지도자로서 나기드(נָגִיד)

'나기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알트(A. Alt)의 견해에 따르면 '나기드'는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 이전 시대를 기원으로 하는 직책이다.²³⁾ 이러한 알트의 주장을 리히터(W. Richter)가 지지하면서 '나기드'의 기원은 왕조 이전 시대, 특히 북쪽 지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⁴⁾ 삼상 9장 16절(사울)과 삼하 7장 8절(다윗)에 나타나는 '나기드'는 군사적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나기드'는 군대 지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왕조가 진행되면서 '나기드'에게 있던 군사 지휘권과 통제권이 이양된다. 슈미트(L. Schmidt)에 의하면 왕조 이전 시대에는 '나기드'가 군대 총지휘관이었고, 카짠(קָצִין) 사 11: 6, 11; 수 10: 24)은 '나기드'의 하위 개념의 지휘관이었으며,²⁵⁾ 왕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שַׂר הַצָּבָא(사르 하짜바/군장)가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본다.²⁶⁾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이전 시대에는 쇼페트(שֹׁפֵט)나 카짠(קָצִין)이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과, 사사기에 '나기드'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나기드'의 국가 이전 시대 기원설에 대한 회의적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적으로 보면 '나기드'는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무렵 처음으로 사울에게 적용되었다(삼상 9: 16; 10: 1; 13: 14). '나기드'를 사울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23) A. Alt,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KS II, (Leipzig: A. Edelmann, 1930), 23쪽.

24) W. Richter, "Die nagid-Formel. Ein Beitrag zur Erhellung des nagid-Problems," BZN Folge 9 (1965), 71-84쪽.

25) 카짠(קָצִין)이 '나기드'의 하위 개념적 지휘관이라는 슈미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나기드'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카짠'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사기에서 이 '카짠'은 사사 입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직책이다(사 11: 6, 11). 따라서 사사 입다의 상위 개념적 '나기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26) L. Schmidt, *Menschlicher Erfolg und Jahwes Initiative* (WMANT 3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155쪽.

삼상 9장 16절²⁷⁾의 본문은 야훼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נָגִיד)로 삼고, 이 지도자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기드'의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나기드'가 북쪽 지파에서 기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나기드'가 초기에는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역할과 같이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자로 보인다.

2) 군주로서의 나기드(נָגִיד)

구약성서의 '나기드' 호칭이 처음 적용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다윗이 '나기드'로 불려졌고(삼상 25: 30; 삼하 5: 2; 6: 21; 7: 8; 대상 11: 2; 17: 7),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왕상 1: 35; 대하 6: 5), 여로보암(왕상 14: 7), 아사(왕상 16: 2), 히스기야(왕하 20: 5)에게 이 호칭이 사용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야훼와 왕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나기드'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²⁸⁾ 즉 왕은 야훼의 관리인 셈이다. 이러한 '나기드'는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오직 왕이 되거나, 왕이 되었던 사람에게만 적용시켰던 용어였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나기드'에 대한 신명기 역사서의 자료들을 넘겨받아 자신의 역사 기록에 사용했지만, 신명기 역사서와는 달리 역대기에는 '나기드'가 왕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역대기에서 '나기드'를 왕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는 다윗(대상 11: 2; 17: 7; 28: 4)과 솔로몬(대상 29: 22; 대하 6: 5)과 아비아(대하 11: 22), 세 명의 왕뿐이다. 이것은 '나기드'에 대한 신명기 역사서의 인식과 역대기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27) 페이올라(T. Veijola)는 신명기 역사서에 쓰이고 있는 '나기드'의 경우 신명기 사가의 다양한 편집적 단계들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삼상 9장 16a절만은 신명기 사가 이전의 자료라고 보고 있다(T. Veijola,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ASF Ser B 198],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 1977], 76-77쪽).

28) U. Rütterswörden, *Die Beamten der israelitischen Königszeit* (BWANT 117), (Stuttgart: Kohlhammer, 1985), 101쪽.

3) 군대 지휘관, 성전 담당자, 행정 관리로서 나기드(נָגִיד)

‘나기드’의 세 번째 의미는 군사적 지도자²⁹⁾도 군주도 아닌, 군대 지휘관과 성전 담당자, 그리고 행정 관리를 의미하는 ‘나기드’이다. 먼저 역대기 저자는 ‘나기드’를 군사적 의미로 성읍을 지키는 ‘장관’으로(대상 12: 28[한글 성경 27절]; 13: 1; 27: 4, 16; 대하 11: 11; 32: 2), 또는 왕실을 지키는 ‘궁내 대신’으로(대하 28: 7), 또는 이방의 ‘군대 장’ (대하 32: 21)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역대기가 신명기 역사서의 자료들을 많이 인용했지만, 신명기 역사서 외에 다른 자료들과 역대기의 시대를 반영하는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느 1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נָגִיד בֵּית הָאֱלֹהִים) 스라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스라야의 직책이 바로 성전의 ‘나기드’이다. 그런데 느 11장 10절에 제사장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스라야가 사독의 증손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스라야는 제사장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스라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나기드’라 불리던 자였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서에서 왕을 야훼의 관리로서 보았던 것처럼, 포로 이후에는 제사장을 야훼의 관리로서 인정하는 후대의 변형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대상 9장 11절에서도 포로 귀환자 중 예루살렘의 제사장 명단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נָגִיד בֵּית הָאֱלֹהִים) 아사랴가 소개되고 있다(비교. 대하 35: 8). 아사랴 역시도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나기드’, 곧 야훼의 관리였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만 ‘나기드’로 불렸던 것은 아니었다. 대하 31장 12-13절은 야훼께 드린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된 물건(성물)에 대한 관리인으로서 레위 사람 고나냐를 세우고(12절),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13절)가 언급된다. 아마도 13절의 아사랴는 대상 9장 11절의 아사랴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레위 사람 고나냐가 성전 관리인인 ‘나기드’로 불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레위인 문지기의 명단 가운데 비느하스

29) 여기서 군사적 지도자는 왕이었거나, 왕이 될 사람을 의미한다.

(대상 9: 20)와 스브엘(대상 26: 24 “곳간 맡은 자”)이 ‘나기드’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 문서들에는 ‘나기드’ 호칭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행정 관리로서의 ‘나기드’를 대하 19장에서 볼 수 있다. 대하 19장은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과 관련된 본문이다.³⁰⁾ 여호사밧은 제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은 대제사장 아마라에게 맡기며, 일반 사법 재판에 해당되는 것은 유다 지파의 ‘나기드’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에게 맡기며, 레위 사람은 법정에서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 개혁을 단행한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사밧 시대인 기원전 9세기이지만, 기록 시점은 바벨론 포로 이후이다. 대하 19장 11절에 나오는 ‘나기드’는 군대 장관도, 성전 관리도 아닌, 일반 행정 관리이다.

이처럼 ‘나기드’는 이스라엘의 왕조 초기부터 기원전 8세기까지는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었다가, 어느 순간 왕이 아닌, 일반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 ‘나기드’가 왕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용된 첫 번째 사람은 아마도 렘 20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로 보인다. 바스홀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을 세습 받았을 것이며, 동시에 “여호와와 그의 집 유사장”, 곧 ‘나기드’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이것은 구약성서 안에서 바벨론 포로 바로 직전에 ‘나기드’의 직책이 왕이 아닌, 일반인에게 적용된 첫 번째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³¹⁾

이와 같이 구약성서에 사용되는 ‘나기드’는 왕조가 시작될 무렵 군사적 지도자로 불려지던 호칭이었으나, 이후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었다가, 왕조 말과 그 이후에는 군대 지휘관과 성전 담당자(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행정 관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점진적 발전 단계를 거쳐 사용되었다.

30) 참고. H. G. So, *Die Justizreform des Josaphat*, Bonn Diss. 2005.

31) 소 형근, “구약성서의 재판관들: 대상 19장 4-1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집(2005년 12월), 126-130쪽.

4. 결론

본 논문은 페니키아어와 히브리어의 동일한 용어인 '나기드'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려는 시도였다. 먼저 노라 비문 7열에 언급된 나기드(*ngd*)는 슈본의 아들, 밀카톤의 직책에 대해 알려주는 용어이다.³²⁾ 밀카톤은 아마도 자신의 군 병력과 함께 다시스에서 추방되어 귀환 중, 사르디니아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 사르디니아를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밀카톤은 페니키아(두로)의 역사적 인물인 푸그말리온(*Pmy=Pugmalion*)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기원전 9세기 후반 페니키아의 식민지 건설과 관련된 지중해 연안의 역사적 상황을 알려주는 기념비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라 비문과 이스라엘 역사가 일치하는 시기는 기원전 9세기 후반인 유다의 요아스 왕 때이다. 이때는 구약성서에서 '나기드'가 왕이었던 사람이나, 왕이 될 사람을 지칭하던 용어였다. 다시 말해 노라 비문과는 달리 히브리어 '나기드'는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까지는 '군대 지휘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왕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이 노라 비문의 나기드(*ngd*)와 구약성서의 '나기드'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페니키아어의 나기드(*ngd*)와 구약성서의 '나기드'가 기능 면에서 일치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이다. 즉, 구약성서의 '나기드'가 왕의 통제를 받던 '군대 지휘관'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에 대한 자료는 역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다(대상 12: 28[한글 성경 27절]; 27: 4, 16; 대하 11: 11; 28: 7; 32: 2). 나기드(*ngd*)에 대한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페니키아어 비문(Nora Stele)이나, 아랍어 비문(Saqqara Papyrus)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왕의 명령을 받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나기드(*ngd*) 호칭을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나기드'는 구약성서 안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 '군사적 지도자', '군주'(왕), '군대 지휘관', '성전 담당자'(제사장, 레위인), '행정 관리'에게 사용된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고대 페니키아어가 고대 히브리어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생각한다

32) 밀카톤 역시 나기드(נָגִיד)였을 것으로 보인다.

면, 두 지역(국가)간에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로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착 이후, 특히 왕조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 왕 히람과 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삼하 5: 11; 왕상 9: 11 등), 아합은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왕상 16: 31). 그러나 노라 비문에서 쓰이고 있는 나기드(*ngd*)의 기능이 구약성서에서도 발견되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참고문헌

- 김 영진, “단 석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논단」 13집(2002년 10월), 107-127쪽.
- 소 형근, “구약성서의 재관관들: 대상 19장 4-1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집(2005년 12월), 114-132쪽.
- 엄 원식,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일고-메사의 석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집(1999년 6월), 175-199쪽.
- 정 중호/최 기수, “앗수르와 이집트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 「구약논단」 4집(1998년 5월), 189-210쪽.
- Albright, W. F., “New Light on the Early History of Phoenician Colonization,” *BASOR* 83 (1941), 14-22쪽.
- _____, “The Role of the Canaanites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G. E. Wright (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Doubleday, 1961).
- Alt, A.,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KS* II, (Leipzig: A. Edermann, 1930), 1-65쪽.
- Aubet, M. E., *The Phoenicians and the West: Politics, Colonies and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2001²).
- Cross, F. M., “An Interpretation of the Nora Stone,” *BASOR* 208 (1972), 13-19쪽.
- Fitzmyer, J. A., “The Aramaic Letter of King Adon to the Egyptian Pharaoh,” *Biblica* 46 (1965), 41-55쪽.
- _____,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 (1967), 52-58쪽.
- Friedrich, J./W. Röllig, *Phönizisch-Punische Grammatik, 3. revised and enlarged*, M. G. A. Guzzo(ed.),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9).
- Noll, K. 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Seminar 83), (London: T & T Clark, 2006).
- Peckham, B., “The Nora Inscription,” *Orientalia* 41 (1972), 457-468쪽.
- Richter, W., “Die nagid-Formel. Ein Beitrag zur Erhellung des nagid-Problems,” *BZN Folge* 9 (1965), 71-84쪽.
- Rüterswörden, U., *Die Beamten der israelitischen Königszeit* (BWANT 117), (Stutt-

- gart: Kohlhammer, 1985).
- Schmidt, L., *Menschlicher Erfolg und Jahwes Initiative* (WMANT 3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 Shea, W. H., "The Dedication on the Nora Stone," *VT* XLI, 2 (1991), 241-245쪽.
- So, H. G., *Die Justizreform des Josaphat*, Bonn Diss. 2005.
- Vejola, T.,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ASF Ser B 198), (Helsinki: Suomalainen Tiedekat, 1977).
- Waltke, B. K. and O'Conne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검색어

노라 비문
페니키아
사카라 파피루스
나기드
군대 지휘관

투고일: 2008년 7월 1일
심사일: 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5일

nāgîd (נָגִיד) in the Nora Inscription and the Old Testament

Hyeong-Geun So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 theol.

This Article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a inscription and the word 'nagid' in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the article of B. Peckham about the Nora Stele, which was read as standard Phoenician and can be taken as evidence that the Phoenicians tried and failed to establish a colony at Tarshish in the late ninth century, is a fine work. Also the article by F. M. Cross, who asserts that the word "*pummay*" in the line 8 of the Nora inscription is the Phoenician personal name standing behind the name of the well-known king of Tyre who ruled in the years 831-785 B.C. as we know from the Tyrian annals, a excellent work. Peckham and Cross regard the word 'ngd' in the line 7 of the Nora inscription as a phoenician commander or officer under the order of his king.

In comparison to the ancient orient the significance of the hebrew *nagid* changed in the Old Testament gradually, namely it was characterized originally as a military leader, and under the early monarchy and till the eighth century B.C. (David-Hiskia) it became applicable to

the king. At last it became a title of military leader, religious functionaries(priest and levite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Keywords

Nora Inscription
Phoenician
Saqqara Papyrus
Nagid